

중기부, 9100억 출자 1.7조 벤처펀드 ‘스타트업코리아’ 시동

글로벌펀드 1500억 등 역대 최대 루키리그에서 1000억 이상 출자 도전적 투자분야 직접제안 운영

오영주 장관 “상반기 중 펀드결성 하반기 본격 투자집행되게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9100억원을 우선 출자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지난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중기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글로벌펀드에 1500억원, 지역 벤처펀드에 1000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출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원)와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200억원), 지역에 있는 기업가형 소상

〈‘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분야〉

출자분야			출자분야		
출자분야	예산	조성목표	출자분야	예산	조성목표
글로벌펀드	1,500	10,000	여성	100	167
지역 벤처펀드	지역혁신벤처	550	청년창업	400	667
	지역 창업초기	200	재도약	300	500
	지역AC 세컨더리	100	임팩트	200	334
	라이콘	150	창업초기	800	1,333
루키리그	1,000+ α	1,667+ α	스케일업	500	1,000

(단위:억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업력 5년 이내이면서 자산운용규모 1000억원 미만의 벤처캐피탈(VC)을 위한 전용 트랙인 ‘루키리그’에서 1000억원 이상을 출자해 루키 VC가 도전적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루키리그에는 전체 출자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출자하되 벤처캐피탈이 획기적인 제안을 많이 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배정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모태펀드가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현재 민간 출자자의 참여의향을 조사해 오는 3월 중 별도로 출자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투자금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영구조도 개편했다.

VC 선정시 ‘펀드의 신속한 결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1차 출자

사업은 펀드 결성시한인 3개월 이내에 결성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결성시한 종료 시점에서 결성액의 70% 이상 모집이 끝난 경우엔 1개월 연장한다.

또 지난해 적극 벤처투자를 집행한 VC에 대해선 출자사업 평가에서 대폭 우대한다.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하는 VC 역시 내년 출자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출자사업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고 모태펀드를 비롯한 핵심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후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도 연계한다.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하고 있다.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일부터 3월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전통시장서 차례상 준비, 5만7000원 아껴요”

소진공,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평균 29만8392원 대형마트 35만4966원 집계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7000원 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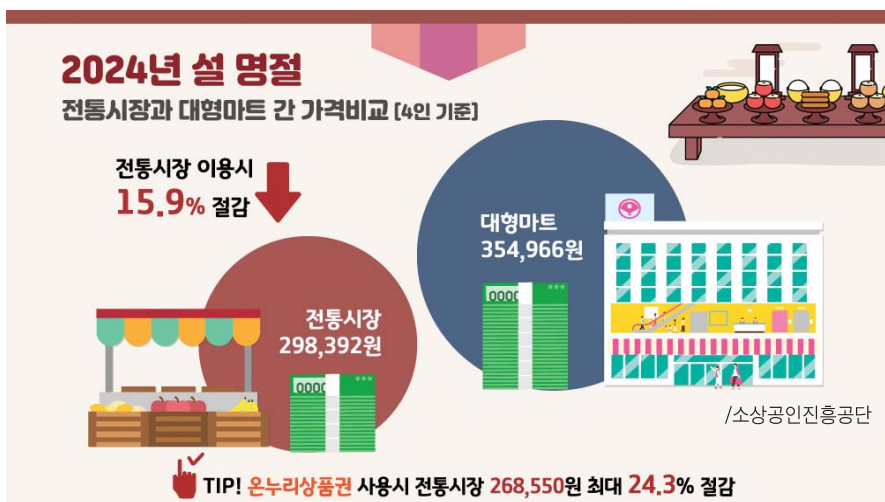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의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채소, 고기, 과일 등 설 제수용품 27개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8392원, 대형마트는 평균 35만496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전통시장은 전체 조사품목 27개 가운데 18개 품목에서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간도라지(69.7%), 고사리(65.8%), 동태포(43.8%), 숙주(35.0%), 탕국용 쇠고기(33.7%), 대추(32.9%) 등이 특히 싼다.

간도라지의 경우 대형마트가 1만4598원이지만 전통시장에선 4419원이었다.

품목 분류별로는 채소류(49.2%), 수



산물(28.6%), 육류(20.6%)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월 200만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서 “설 명절 기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좋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곳의 전통시장, 상점, 골목형상점가 내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온누리상품권 표지판이 부착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형 상품권 전용 앱상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판매대금 270억 조기지급

중소 협력사 자금부담 완화 기대

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에 27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당초보다 8일 앞당겨 5일에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최대 12일 먼저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판매대금 조기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2년부터 설·추

석 등 명절 전 판매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조기 집행한 납품대금 누적 금액은 1050억원에 이른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상생결제, 상생펀드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이번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공영홈쇼핑과 함께하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명절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불가 안정 정책을 수행해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에 앞서 본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에서 마포복지재단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떡국나눔 호도밥상’ 기부 및 봉사활동도 펼쳤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 생태계 조성

중기융합중앙회와 워크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융합중앙회와 지역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지난 1~2일 이틀간 중진공 충청연수원에서 열린 중기융합중앙회 ‘2024년도 정기이사회 및 지역연합회 비전워크숍’에 참석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는 강 이사장 외에 최봉규 중

기융합중앙회장, 지역 연합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지역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 강화 ▲지역기반의 민·관 협력문화 확산 ▲정책사업 개선의견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융합중앙회 임원단 및 지역연합회 회장단들은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 사업 지원, 융·복합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준 개선 및 연계지원 사업 강화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역산업 육성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2021년부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한 해 41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2633개 기업을 대상으로 8679건의 사업 연계 및 1만46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중진공은 ‘동반성장 네트워크’ 사업을 새로 추진해 지역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진, 설 특수... 고객 서비스 만전 다짐

노삼석 대표, 구로 허브터미널 방문 종사자 의견청취, 현장점검 등 실시

한진이 설 명절 택배 특수를 맞아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다짐 행사를 가졌다.

4일 한진에 따르면 노삼석 대표와 조현민 사장이 현장 점검을 위해 한진택배의 시작점이자 서울 남서부 핵심 거점인 남서울(구로) 허브 터미널을 방문,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한진은 지난달 정식 개장한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 터미널에 힘입어 올해 설 특수기 물량이 한진택배 사상

최대의 명절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노 대표와 조 사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이 곧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평소와 같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각 터미널 작업 상황 확인, 휠스터 등 분류시설 점검, 현장 종사자 편의시설, 통제실 근무 상황 등 모든 작업장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겨울철 추위로 인한 빙판길, 장시간 야외 활동, 이른 일몰 시간에 따른 야간 운행 등에도 택배기사들이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명절 상품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배송시 안전도 거듭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